

‘헤어질 결심’ ‘브로커’...경쟁부문에 韓영화 2편

‘기생충’ 이어 황금종려상 수상 기대
박찬욱의 ‘헤어질 결심’ 유력 후보
‘브로커’ 송강호 남우주연상 가능성
문수진 ‘각질’ 애니 첫 트로피 도전
이정재 ‘헌트’ 등도 레드카펫 밟아



18일(한국시간) 개막하는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된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왼쪽)과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커’의 수상 여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영화의 공식 스틸.



18일(한국시간) 개막하는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된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왼쪽)과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커’의 수상 여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영화의 공식 스틸.

제75회 칸 국제영화제가 18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칸에서 축제의 막을 올린다. 29일까지 펼쳐지는 올해 영화제는 여느 때보다 세계적인 시선이 쏠리고 있다. 2020년 초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팬데믹) 사태 이후 3년 만에 정상 개최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초청작만 발표하거나 상영 규모를 줄이는 등 축소 운영했다. 무엇보다 올해에는 다섯 편의 한국영화가 칸에서 해외 관객을 만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안긴다. 한국 콘텐츠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진 가운데 2019년 ‘기생충’에 이어 다시 한번 한국영화 황금종려상 수상작이 탄생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영화, 수상 가능성 높다”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과 일본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처음 연출한 한국영화 ‘브로커’가 올해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돼 다른 19편의 상영작과 수상 경쟁을 벌인다.

국내의 전문가들은 ‘올드보이’와 ‘박쥐’로 각각 2004년 심사위원대상과 2009년 심사위원상을 거머쥐었던 박찬욱 감독의 수상을 유력하게 내다보고 있

다. 미국 영화전문지 필름 스테이지는 올해 영화제에서 가장 기대되는 영화 가운데 ‘헤어질 결심’을 두 번째로 꼽았다. 2006년 ‘아가씨’ 이후 6년 만에 칸 레드카펫을 밟는 박 감독은 주연 박해일 탕웨이와 24일 ‘헤어질 결심’을 공식 상영한다.

27일에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송강호 등과 함께한 ‘브로커’를 소개한다. 2013년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로 심사위원상을, 2018년 ‘어느 가족’으로 황금종려상을 받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수상 기대감 속에 송강호의 남우주연상 호명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 애니메이션도 첫 칸 트로피를 노

린다. 문수진 감독의 ‘각질’이 단편 경쟁 부문에 초청됐다. 타인에게 비난받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페르소나를 각질에 비유해 풀어낸 작품으로 8편의 초청작과 경쟁한다.

●풍성한 한국영화와 배우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을 통해 세계적인 스타로 거듭난 이정재는 영화 연출 데뷔작 ‘헌트’를 이번 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서 선보인다. 해외 매체들은 일찌감치 이정재의 관련 소식을 다루며 큰 관심을 드러내왔다. ‘헌트’의 주연이자 절친 정우성과 함께 21일 오전 레드카펫을 밟을 예정이다.

‘브로커’ 주연 배우나는 또 다른 출연작 ‘다음 사회’(정주리 감독)를 비평가주간 폐막작으로 상영한다. 프랑스비평가 협회가 주관하는 비공식 섹션인 비평가 주간에서 한국영화가 폐막작으로 선정된 건 처음이다. 배우나는 할리우드 영화 ‘리벨 문’ 촬영 일정상 칸으로 날아가지 못한다.

오광록은 프랑스영화 ‘리틀 투 서울’을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서 소개한다. 어린 나이에 입양된 25세 여성이 한국에 돌아와 친부모를 찾는 이야기에서 오광록은 캄보디아계 프랑스 감독 데이비드 추와 함께 22일 칸 레드카펫 위에 오른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연예뉴스 HOT 3

아이유, 서른번째 생일 맞아 2억여원 쾌척



아이유

가수 아이유가 생일을 맞아 선행을 펼쳤다. 16일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아이유는 자신의 서른 번째 생일인 이날 사랑의 달팽이,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이드아이빌, 사회복지법인 창인원 등에 총 2억1000만 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청각 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수술비 및 치료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소속사는 “생일을 축하해 준 많은 팬들과 함께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마음을 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는 6월 8일 영화 ‘브로커’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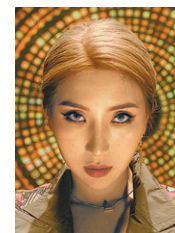
르세라핌 김가람, 학교폭력 의혹 재점화



김가람

신인 걸그룹 르세라핌의 멤버 김가람이 학교폭력 의혹에 다시 휩싸였다. 16일 가요계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가람의 이름이 적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라는 제목의 문건 사진이 퍼졌다. 문건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6조와 17조 조치사항을 통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김가람은 중학생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 쏘스뮤직은 “교묘히 편집해 악의적으로 음해한 사안이라는 지난 입장과 같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자이언트핑크, 개물림 피해 견주에 사과



자이언트핑크

래퍼 자이언트핑크(박윤하)가 개물림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16일 피해 견주인 A씨는 최근 한 공원에서 자이언트핑크의 반려견이 자신의 반려견을 물어 죽였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강아지를 데리고 있던 자이언트핑크의 친언니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고, 동물병원에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이언트핑크는 “당시 사고 현장에는 없었지만 언니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고 공동 견주이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죄송했다”면서 “피해 견주를 직접 만나 사과하고 싶어 연락을 취했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장르 안 가리는 ‘오은영 매직’

아동 넘어 성인 상담 예능으로 확장
부부 소재 MBC 다큐플렉스도 출연
21·22일에는 행복 주제 토크콘서트



오은영 박사

인기를 발판삼아 행복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도 연다.

육아 상담 전문가로서 남다른 입지를 다져온 오은영 박사는 올해 들어 성인 심리 상담에 힘을 쏟고 있다.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 SBS ‘씨클하우스’ 등을 통해 가족·친구와 갈등부터 수면 장애, 폭식, 과소비 등 다양

한 고민을 가진 성인들과 만나고 있다. 심리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겠다는 의지로 프로그램 제작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최근 방송가 트렌드로 떠오른 부부 소재에도 손을 내밀었다. 10부작 MBC 다큐플렉스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을 16일부터 선보인다. 200쌍이 넘는 신청자 부부 중 9쌍을 만나 임신, 출산, 부부관계 등 민감한 고민을 듣는다. 오 박사는 이날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다양한 소재를 다뤘지만 부부 상담은 처음”이라며 “차질 자극적으로 비치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 세심한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

21·22일에는 토크 콘서트 ‘1도의 변화,

우리들의 마법의 순간’의 무대에도 선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시작해 창원, 청주, 춘천 등으로 이어간다.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관객과 직접 만나 행복에 관한 고민을 나눈다. 배우 고소영·소유진·지소연, 방송인 하하 등 연예인들도 개인 SNS에서 “나도 티케팅에 도전하겠다”며 ‘팬심’을 드러냈다.

오 박사는 “분야를 넓혀가는 부담감과 행복을 동시에 느낀다”며 “사회적 다양한 고민을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소스 하나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보세요!

매콤, 새콤, 달콤 맛의 절대강자 ‘매콤조림소스’ 황금레시피!!

- ☑ **매콤조림소스 하나면!** 다른양념없이 맛있고 누구나 손쉽게 가정에서도 요리가 가능하여 편리하고 경제적입니다.
- ☑ **매콤조림소스 하나면!** 저렴한 인건비와 손쉬운 조리시스템으로 식당에서도 맛집이라는 찬사를 받게 됩니다.



매콤조림소스

용량	2kg(1BOX/6개입)
식품의유형	소스(살균제품)
포장재질	폴리에틸렌

매콤조림소스
2kg
22,000원

★ 매콤조림소스의 원칙 ★

- 본사의 수년간 축적된 노하우로 완성된 차별화된 특제소스
- 식재료 직배송 시스템으로 전국 방방곡곡 직접 배송
- 요리에 자신이 없는 분들도 매콤조림소스 하나면 손쉽게 요리가능



코로나19 확산 이후 식문화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식사 해결 방식과 구매 채널, 품목 등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재택근무 확산, 개학 연기,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외식 대신 집에서 밥을 먹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달라진 식문화 트렌드로 가정간편식 시장 성장에 가속도가 붙었다. 특히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일선 식당이나 외식사업에 힘들어하는 사장님들께 가정의 주부님들께 요리의 다변화와 간편하고 손쉬운 메뉴의 다양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불황극복에 가장 적합한 품목으로 외식사업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매콤조림소스’를 선보이고 호응을 얻자 생산량 확대를 소비자들의 욕구에 충족 시켜 주고 있

다. 아무리 코로나19로 이동에 제한이 있지만, 먹거리에서만큼은 더 까다로운 소비자들의 욕구에 충족하기 위한 안전한 먹거리는 엄선된 식자재만을 사용해 내 가족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소스를 판매하는 이곳은 대량생산은 물론 소량생산, 소포장 납품도 가능하다. 현재 서울·경기를 비롯해 전국 맛집에 ‘매콤조림소스’를 납품 중이며, 업종변경 및 추가품목을 원하는 곳이면 자세한 견적문의 및 제품문인에 관련해 친절히 답변을 해주고 있다.

상담문의 ☎ 02-777-0322